



잎 떨어 나무들, 10년 후에도 거기 있을까

홍진숙의 '섬을 걷는 시간' 3년 전부터 채집한 나뭇잎 모노타이프 기법으로 살려 제주시·서귀포서 잇단 전시



홍진숙의 '잎(leafs)-비자림'

은행나무, 칙나무, 생달나무, 으름, 환상덩굴, 팽나무, 산유자나무, 쯤글거리나무, 박주거리... 안덕계곡에서 그가 본 건 바람을 타고 스르르 땅에 내려앉았을 잎들이었다. 화면 안에 지그재그 자리잡은 그것들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태계를 증거한다. 무수한 생명 중에 어느 하나가 소멸된다면 평화로운 공생 관계도 어긋나버린다.

홍진숙 작가는 3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제주 '바닷길'을 걸으며 그 잎들을 만났다. 1년 넘도록 이어진 시간 동안 260km 구간을 누볐고 제주섬의 세밀한 표정들이 서서히 가슴 안으로 들어왔다. 특히 2018년부터는 나무와 잎들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나뭇잎의 형태를 통해 나무를 알아가며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회화와 판화, 그림책 작업을 넘나들며 이 땅의 오래된 것들에 눈길을 뒀던 그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아트스페이스C에서 펼치는 17회 개인전 '섬을 걷는 시

간'에 그 여정이 있다. 모노타이프 기법으로 나뭇잎과 고사리의 각기 다른 형태와 특색을 잡아내고 채색으로 살려낸 작품들이 나온다. 홍 작가의 발길은 민오름, 수목원, 향파두리, 왕이메, 제주도립꽃자왓공원, 가파도, 안덕, 영포폭포, 세섬, 영천악, 효돈, 오소리, 비자림, 동백동산, 서우봉까지 이어졌다. 그곳에서 채집한 잎들은 제주 자연이 '무한한 생명의 창고'임을 세삼 일깨웠다.

“현재 제주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이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는 과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홍 작가의 물음은 단지 특정 생명체의 영속성에 대한 회구에 머물지 않는다. 거대한 자본의 논리 속에 땅과 바다가 뒤집히고 거꾸러지는 이곳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제주시 전시에 이어 9월 7~26일에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갤러리 ICC제주도 향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토평동 생약연구소 문화재 등록 예고

40년대 건립 약초재배 시설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 근무 "건축·인물사적 가치 높아"

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4일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등 6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등록 예고 대상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이 결정된다.

현재 서귀포시청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은 약초를 재배,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0년대에 건립된 시설이다. 문화재청은 "당시 작성된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시험장배치도'를 통해서 건축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고전건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축물의 정면성(正面性)을 강조하기 위해 포치에 표현한 마감재의 디테일 등이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화재청은 이번해 해당 건물 이 석주명 선생이 1943~1945년 근무했던 곳으로 지역사(인물)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이 시설을 '영천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석주명기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가문화재 등록을 추진해왔다. 석주명 선생 기념사업 연구역을 진행했던 서귀포시는 향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과 연계해 석주명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쫓겨

국립제주박물관 재개관

국립제주박물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이달 6일부터 박물관 재개관에 나선다.

박물관 단체 관람과 교육·행사는 계속 중단되고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간 거리유지(1~2m)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 관람만 허용된다. 특히 사전예약제를 통해 시간당 관람 인원을 100명 이하로 제한하고 시간당 별로 이용자를 분산하기 때문에 사전에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관람 시간, 예약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 064)720-8026.

문학의 집 동화 창작공간

제주문학의 집이 '2020 도민문학학교 동화 창작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화를 선물할게'란 제목으로 열리는 강좌는 제주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수명 작가와 간결한 문체와 특유의 익살로 사회문제 등을 다룬 동화책을 펴낸 진형민 작가를 초청해 5월 14~16일 4일 목요일 오후 7시, 6월 12~13일 오후 7시 진행된다. 어린이문학 창작 이론을 익히고 수강생들의 습작 원고를 합평하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70-4115-1038.

여성영화제 단편 공모

(사)제주여성회가 9월 16~20일 개최되는 제21회 제주여성영화제 단편경선 색션인 '요망진당선작'을 공모하고 있다.

요망진당선작은 신진 여성감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5월 24일까지 이메일(jejuwomenfilm@hanmail.net) 등으로 접수가 이루어진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완성된 40분 미만 작품으로 공모 출품이력 없어야 한다. 장르 제한은 없다.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작품상 1편, 관객상 1편을 각각 선정해 시상한다. 문의 064)756-7261.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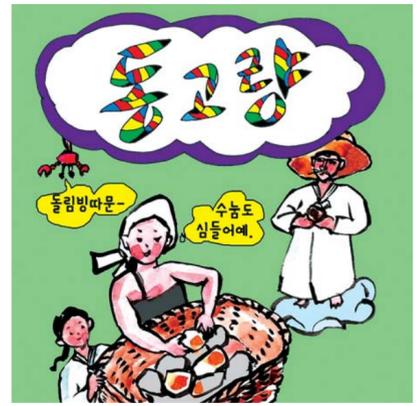
이번 선정에 따라 2억4000만원을 들여 사업이 나간다. 영상애니메이션, 디자인스튜디오, 드론촬영, 캡션 툴디자인 등 4개 정규 과정과 항공 GIS맵핑 이론·실습 등 12개 비정규 과정을 통해 융복합 인터랙티브 프로젝트 맵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문의 064)735-0611.

고재만의

제주어기림찬관

<20>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맨. "즈네야- 는 물질 흐레 가사 흘긴디 어떻게 하시민 좋으 커냐?"

오맹이 골맨. "누남- 물질흐레 가지말서. 돌림빙이 가불민 흘서게." 즘네 골맨. "하르바지- 나 얼마간 물질흐레 안 가쿠다. 삼춘네가 밧디 모뭇씨 빼엄시난 도웨사 허쿠다. 돌림빙 따문 수늘도 심들어양." 하르바지 골맨. "기여게. 츠말 잘 생각흐엿저. 요지금 밧일덜이 한디 느라도 도웨주켄 허난 소망이여. 삼춘네 밧일 갈 때랑 감계냥 범벅 맹글양 동고랑에 그득하게 담곡허영 ㄹ정강 안네라. 삼춘네영 말 곱을 때는 투글락허지 말곡 밧일도 선네네 허라이"

* 제주어 풀이

- *물질 : <이름>해녀가 바다에 나가 잠수하며 해산물을 잡는 일.
- *수늘(수늘일) : <이름> 농사지를 때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해주기로 하여 힘을 모아 하는 일.
- *요지금 밧일덜이 한디 : 요즈음 밧일이 많아.
- *동고랑(도고랑, 도솔기, 도솔기, 동고령, 동고리, 동오랑, 밧당석, 밧장석, 밧차롱, 밧차반이, 태오리차반지) : <이름>대나 버들가지 따위로 동고스름하고 자그마한 대그릇(깊이 30cm정도). 주로 도시락으로 쓰임.
- *투글락허지 말곡 : 심뭇거리지 말고.
- *선네네 허라이 : 서두르며 시원스레 하거라.

부호- / <이름>이름씨(명사) / <그림>그림씨(형용사) / <움직>움직씨(동사) / <어찌>어찌씨(부사) / <대어>대어씨(대명사) / <생>생씨(수사) / <느낌>느낌씨(감탄사) / <토>토씨(조사) / <때>때씨(조사) / <이름>이름씨(이름) / <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관사전 송상조제, 한국문화사.1991)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릴레이 만평 7

만평=강진우(제주만화작가회 회원)

직명 A/S체제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확장이전

대륙종합농기계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 대륙기계 제주총판
(주) 두산테크 제주총판
(주) FELCO가위 제주총판
(주) 미듬 제주총판

감귤 전정목 파쇄와 제주지형에 강한 맞춤형 파쇄기!!

FELCO SWISS MADE

휴대용 전동가위
스위스 전통의 정밀기계와 컴퓨터 기술을 융합한 충전식 배터리 전동가위로써 우수한 절단 능력과 최상의 편리성 실현

전기종 본체를 열지 않고도 가위날 교체 가능
전기종 정부지원(보조금) 농협농자 대상기종

FELCO 801 최대 절단경 30mm
FELCO 811 최대 절단경 42mm
FELCO 820 최대 절단경 45mm

14TRC-HS (16마력)
10TRC-H (9.5마력)
13TRC-H (14마력)
15CRS (18마력)

강력한 힘! 손쉬운 운전!!

1회 충전 5일 이상 사용 **운전 조작이 너무 쉽다**

MX-E350 (전동형)
MX-500DL (케도형 덩크+리프트)
MX-500 (케도형 수동)
MX-300 (엔진형)

대륙종합농기계 판매/AS문의 **064) 767-3430**
(위미 입구 삼거리 남향 방향 300m)